

[6·4지선 D-1]'강원랜드 사장 출신' 도지사 탄생여부 촉각

등록 2014.06.03 10:49:05 | 수정 2016.12.28 12:51:31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랜드 사장 출신 첫 도지사가 탄생할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역대 강원랜드 사장과 감사 출신 가운데 정치적으로 강원랜드를 '활용한' 사례는 최옥철 전 감사가 제18대 총선을 통해 고향인 강릉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첫 주인공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또 제6대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임했던 최영 전 사장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2011년 2월2일 출판기념회까지 개최했으나 선거법 위반 문제 등으로 출마를 접고 '타의'에 의해 정치판을 떠나야 했다.

이런 상황에 지난 2011년 7월, 제7대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했던 최홍집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지난 2월 7일 도지사 출마를 위해 임기를 6개월 남긴 채 사장직을 던지고 새누리당 경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당초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경선관문을 통과한 뒤 선거초반 최문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밀렸던 열세를 새누리당 간판으로 극복하며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가 지난달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최홍집 후보 46.6%, 최문순 후보 47.2%의 오차범위 내 '살얼음판' 승부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정가에서는 이번 도지사 선거전에 대해 "서민스타일의 최문순 후보와 엘리트 분위기의 최홍집 후보의 대결은 색다른 관전 포인트"라며 "현직 도지사와 전직 부지사의 대결 이전에 강원랜드 전직 사장이라는 점도 흥미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랜드 사장 출신이 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강원랜드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원랜드가 여당 정치인들의 '도지사 관문'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강원랜드 사장출신이 도지사에 출마하려다 모두 실패했던 상황에 최홍집 전 대표가 당선되면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강원랜드 사장 출신의 도지사 당선은 강원랜드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게 될 우려도 있

다"고 지적했다.

casinoho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